

WEEKLY GUIDE BOOK

2025/02/07

박석중 연구위원

✉ park.sj@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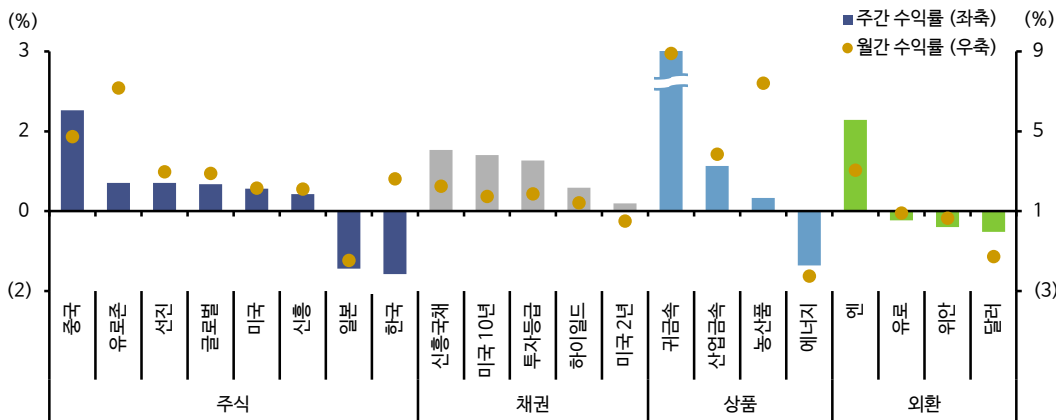


관세 부과에도 제어된 변동성

트럼프발 불안 본격화.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동. 중국의 맞대응 관세와 전략 광물 수출 제한에 위험 회피 자극됐으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유예와 시장금리 안정에 위험 회피 진정. 트럼프 1기와 2기의 관세정책 차이점은 1) 관세 정책 충격 최소화 위해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승 제어하려는 트럼프 내각의 노련미가 더해져 금리 상방압력 통제됐고 2) 중국 경기는 위축보다 부양책 이후의 회복 경로가 기대, 3) 실적시즌에서 확인한 우호적 펀더멘탈과 AI와 연계된 기술주 낙관 편향 이어지고 있기 때문. 주간 수익률 기준 주식(S&P500 0.2%, Eurostoxx50 1.4%, CSI300 0.7%), 채권(미국 10년 -8.2bp, 독일 -14.4bp, 한국 -9.5bp) 동반 강세와 국제유가(WTI -2.9%) 안정, 달러(DXY -0.1%) 약보합으로 변동성 통제

美, ADP 민간고용과 주간 실업청구 혼선 존재하나 제조업 PMI 확장 전환 등 견조한 경기 흐름 확인. 中, PMI 50 이하 국면 위축은 부담요인이거나 관세 부과와 결부돼 부양책 집행 명분은 되려 확대. 유럽 경기 부진 지속 구간에서 ECB에 이어 BOE 정책금리 인하 단행.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정책기조에서의 시장 예상과도 부합. 다만 25년 성장 전망은 1.5%에서 0.75%로 큰 폭 하향. 영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한 확장 재정, 그에 수반한 채권 발행 확대와 법인세 인상은 여전한 불안 요인. 차주 미국 1월 물가와 소매판매 영향력 높을 전망이며 트럼프발 관세, 지정학 불안에 각별한 모니터링 필요

글로벌 주요 자산별 수익률



홍지연 ✉ h.jyeon@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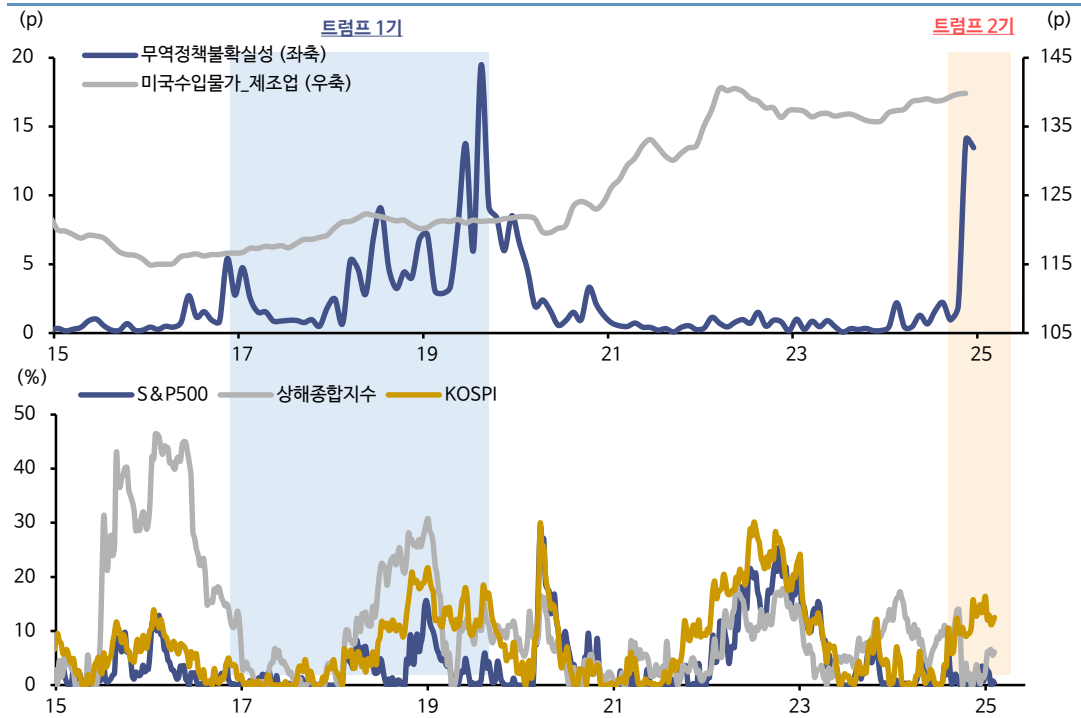


무역분쟁에도 이어진 위험 선호

트럼프 대중 10% 추가 관세 부과 공식 발표(4일). 중국은 보복 관세, 핵심광물 수출 통제, 반독점 조사로 맞대응. 트럼프 1기 미중 분쟁 복기하면, '18년 6월 대중 25% 관세 부과 공식 발표. 미중 대립 심화에서 수요(경기+이익) 위축이 동반. S&P500, 상해종합 6개월간 15~17% 하락하며 변동성 확대

현재 시장 변동성은 트럼프 1기 대비 제어된 모습. 무역 불확실성 속 강세장 추세 유지. S&P500, 상해종합지수 주간 +0.2%, +0.6%으로 선방. 美 국채 10년물 금리도 8.2bp 하락하며 할인율도 우호적 환경을 조성. 1) 노련해진 트럼프의 에너지 비용 감축 통한 물가 제어 의지 확인, 2) 美 양호한 경제지표, 3) 높아진 中 정책 기대감, 4) AI S/W 중심 주도주가 관세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

트럼프 1기 vs. 2기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 주: 아래 차트는 52주 고점 대비 낙폭

Macro

하건형 ✉ keonhyeong.ha@shinhan.com



일부 관세 유예 속 제조업 회복세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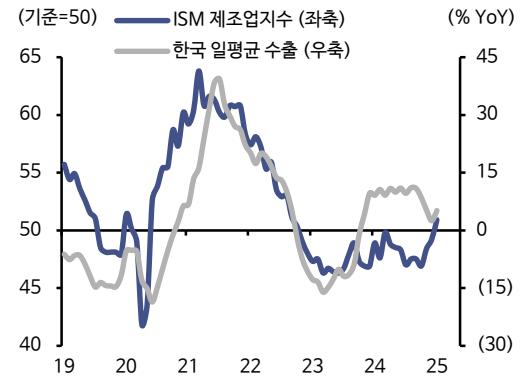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2월 4일 시행 앞두고 한 달 간 유예. 중국 그대로 관세 부과했으나 이미 높아진 관세로 타격 제한적

미국 제조업 서베이 지표 기대치 상회.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 50.9 기록하며 컨센서스(50) 큰 폭 상회. 신규주문과 생산 개선 부각된 가운데 고용도 8개월 만에 기준치 상회.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1로 2개월째 후퇴했으나 기준치(50) 3개월째 상회하며 업황 악화 우려 미미

한국 1월 수출 전년 대비 10.3% 줄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으나 설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4일 줄어든 영향 우세. 일평균수출 7.7% 늘며 3개월째 증가. IT 및 유망 품목(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화장품)과 미국 중심 수출 양호

미국 내수 확장세 진정. 미국 1월 ISM 비제조업지수 52.8로 소폭 후퇴. 지난 12월 가파른 개선 보였던 경기활동 증가폭 축소한 까닭. 12월 구인율 4.5%로 하락하며 2019년 수준 기록. 고용수급 개선 시사

미국 ISM 제조업지수와 한국 수출, 미국 물가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Economist's View



- ✓ 중국 2월 10일부터 석탄 및 LNG(15%), 원유, 농업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등(10%) 관세 부과 예고. 미국산 수입품 중 8.5%에 해당돼 보여주기성 대응으로 판단. 추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 대응 수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
- ✓ 제조업 경기 회복세 이어지고 있으나 관세 부과 앞두고 선제적이고 마찰적 수요 유입 가능성 우세. 4월 1일까지 무역협정 검토 있는 만큼 1분기 중 단기 재화 수요 양호 기대

Indicator

하건형 ✉ keonhyeong.ha@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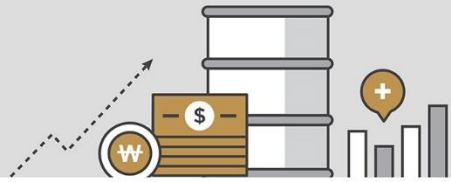
- ✓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지난 12월 소비자물가 양호한 수요 환경 속 재화 물가 안정 및 서비스 물가 추가 상승 제한. 서비스에서 재화로 수요 이동해 점진적 물가 안정 기조 유효
- ✓ **미국 1월 주요 동행지표:** 양호한 고용시장에 소비 하단 지탱 예상. 견조한 재화 수요 유지 기대
- ✓ **영국 4Q GDP:** 금리 인하 효과에도 4분기 중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부진 등에 제한된 성장세 예상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1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지준일	BOE 통화정책회의	미국 고용보고서
한) 12월 산업생산 (MoM) 4.6% / 0.3% / (0.3%)	미) 12월 JOLTs 구인건수 7,600K / 8,000K / 8,156K	한) 1월 소비자물가 (MoM) 0.7% / 0.5% / 0.4%	한) 12월 경상수지 \$12,367M / - / \$10,046M	미) 1월비농기취업자(MoM) - / 175K / 256K
한) 12월 선행지수 100.6 / - / 100.8	미) 12월 제조업주문(MoM) (0.9%) / (0.8%) / (0.8%)	중) 1월 차이신 서비스업PMI 51.0 / 52.4 / 52.2	영) 2월 BOE 정책금리 4.50% / 4.50% / 4.75%	미) 1월 실업률 (SA) - / 4.1% / 4.1%
유) 1월 소비자물가 (YoY) 2.5% / 2.4% / 2.4%		미) 12월 무역수지 (\$98.4B) / (\$96.8B) / (\$78.9B)	유) 12월 소매판매 (MoM) (0.2%) / (0.1%) / 0.0%	미) 2월 미시건 소비심리 - / 71.8 / 71.1
중)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1 / 50.6 / 50.5		미) 1월 ISM 서비스업지수 52.8 / 54.0 / 54.0		미) 2월 미시건1년기대인플레 - / 3.3% / 3.3%
미) 1월 ISM 제조업지수 50.9 / 50.0 / 49.2				미) 2월 미시건5년기대인플레 - / 3.2% / 3.2%
10	11	12	13	14
	MSCI 분기리뷰	미국 소비자물가	옵션만기일	
		미) 1월 소비자물가 (MoM) 0.3% / 0.4%	한) 12월 M2 유동성(MoM) - / 0.8%	한) 1월 실업률 (SA) - / 3.7%
2월 9일 (일요일)			영) 4Q GDP 속보치 (QoQ) - / 0.0%	미) 1월 소매판매 (MoM) 0.0% / 0.4%
중) 1월 소비자물가 (YoY) 0.4% / 0.1%			유) 12월 산업생산 (MoM) (0.2%) / 0.2%	미) 1월 산업생산 (MoM) 0.3% / 0.9%
중) 1월 생산자물가 (YoY) (2.2%) / (2.3%)			미) 1월 생산자물가 (MoM) 0.2% / 0.2%	미) 1월 설비가동률 77.7% / 77.6%
중) 1월 M2 유동성 (YoY) 7.3% / 7.3%				미) 1월 수입물가 (MoM) 0.4%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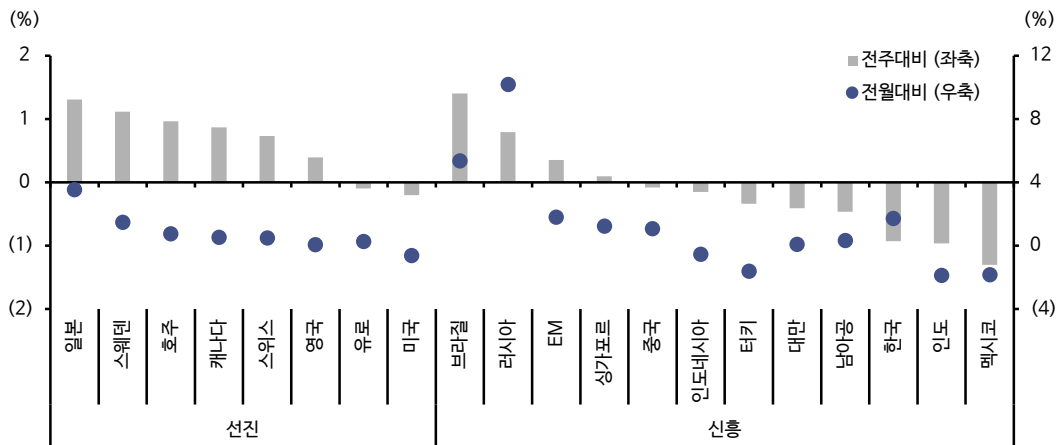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전주 지표 수치는 발표치/예상치/이전치, 내주 지표 수치는 예상치/이전치

FX

김찬희 ✉ chee@shinhan.com



주요 통화 달러화 대비 등락률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변동성 확대

(Review) 달러화 108pt 내외에서 변동성 확대. 트럼프가 주말 사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유예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정책 불확실성에 110pt 부근까지 속 등했던 달러화는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고용 및 서비스업 서베이 부진, 국채 수급 부담 완화 등이 맞물려 107pt대로 되돌림. 원/달러 1,450원 부근에서 변동성 확대. 트럼프발 관세 충격 고조된 까닭. 주 후반으로 가며 미국과의 금리 차 축소 연동돼 하락 되돌림

(Preview) 다음주에도 변동성 확대 염두 필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경계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주목. 2월 4일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2월 10일부터 10~15% 보복 관세 부과 시사. 비교적 온건한 수위의 보복 조치에 G2 간 합의 기대 우세하나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대중국 수입품은 소비재 비중이 낮아 추가 관세 부과 염두. 보복 관세 가시화 시 재차 변동성 확대 예상. 한편 미국 소비자물가는 서비스에서 재화로 소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완만한 안정세 이어져 달러화 하락 요인이 될 전망. 다음주 원/달러 환율 1,400원 중반 하방경직적 흐름 이어질 전망. 미국 시장금리 안정 추이에 따라 내외 금리 차 축소와 연동된 원화 강세 압력 우위. 다만 주식시장에서 내국인 투자자들 중심의 자금 이탈 압력 지속돼 수급 여건은 약세 뒷받침



미국: 소프트웨어로 주도권 이동

S&P 500 전주대비 0.2% 상승. 답시크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가 EU/중국/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한 관세 광역 도발을 시전하면서 주식시장은 장중 변동성 확대. 다만 3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로 불안감이 진정된 가운데, 새롭게 부상하는 주도주 팔란티어가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면서 시장 시선은 펀더멘탈로 이동. 특히 소프트웨어가 실적시즌을 계기로 주도권을 확실히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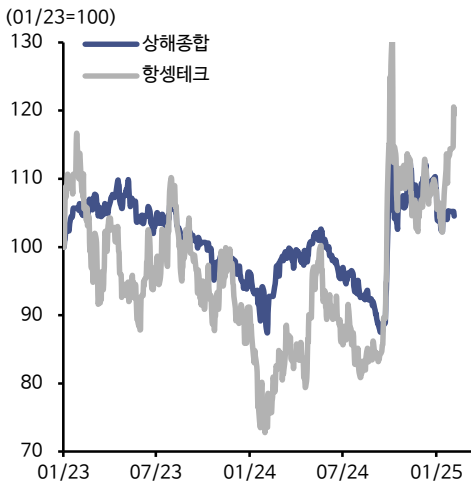
트럼프가 또다시 무슨 돌발 행동을 벌일지 알 수 없으나 시장의 면역이 생겼고, 다음주 예정된 소프트웨어/플랫폼 실적들이 호재로 작용할 공산. 노이즈보다 실적에 주목할 시점

소프트웨어로의 주도권 이동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정책 시즌, 민감주보다 테크가 움직이는 중국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non-US: 답시크라는 기회를 문 중국

Eurostoxx 50 전주대비 1.4% 상승.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SAP + 금융 + 방산으로 구성된 주도주들의 주가 타격은 미미. 제조업 부진을 상쇄하며 관세 우려에도 방어력 시현

Nikkei 225는 전주대비 1.1% 하락. 트럼프가 제기하는 외부 위협에 더해 미-일 금리차 축소와 엔화 강제 반전에 출렁거리는 시장. 대형주 대다수가 약세 압력 겪으며 부진

상해종합 전주대비 0.6% 상승. 전통적으로 주가 계절성이 좋은 3월 정책 시즌을 앞뒀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답시크 테마를 찾는데 분주한 중국 증시. 항셱테크와 AI 관련 테마들의 급등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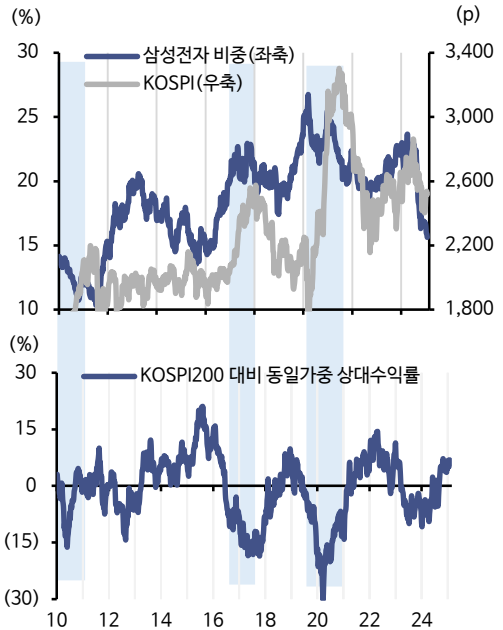


KOSPI: 지수보다 빛날 업종 구간

KOSPI, KOSDAQ 각각 0.8%, 1.7% 상승. 예상보다 양호한 4Q24 실적 발표, 트럼프 행정부 보편관세 유예 영향에 반등. 주목할 점은 지수보다 더 나은 업종 수익률. 딥테크 출현 여파가 세계 하드웨어 수익률 속도 조절에 영향. 동시에 소프트웨어로 무게 중심 이동 조짐 나타나며 국내 종목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 여전히 높게 유지 중인 원/달러 환율, 3월 중국 정책 기대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내재 리스크 완화되는 중

1분기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4% 대외 높게 유지. 4Q24 실적과 무관하게 올해 상반기 내내 이익 예상보다 견조할 가능성.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 불가피. 주식시장 당초 내재했던 이익 낙폭보다 양호할 경우 지수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 전망.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라 부침 있겠으나 완만한 회복세 연장 기대

테마와 종목 장세의 2월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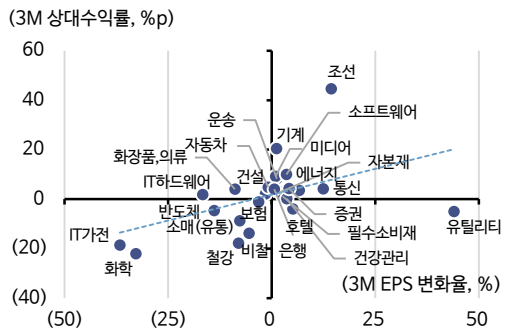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전략: 이익 상향 업종에 프리미엄 부여

지난 3개월은 이익 변화 경로에 업종 수익률 결정. 이익대비 상대수익률 개선 가능한 업종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통신, 증권, 에너지, 헬스케어, 자본재, 필수소비재 등. 조선, 기계는 밸류에이션 높지만 이익 변화 상대적으로 우수.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 가능. 주식시장 리스크 완화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중소형주 회복 속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 스타일 측면에서 배당과 주주가치에도 주목할 구간

업종별 12MT PBR 표준화(z-scor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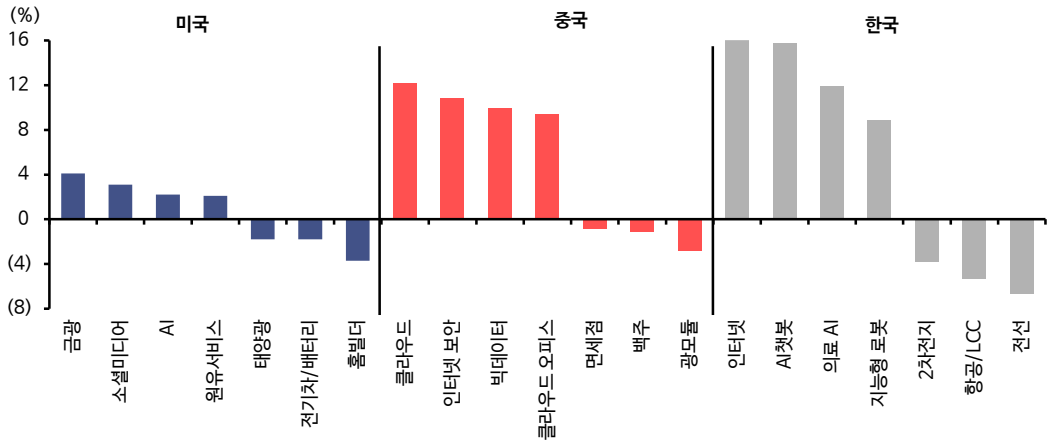
Hottest Stocks

주도주 & 테마

강진혁 ✉ kjinhyeok@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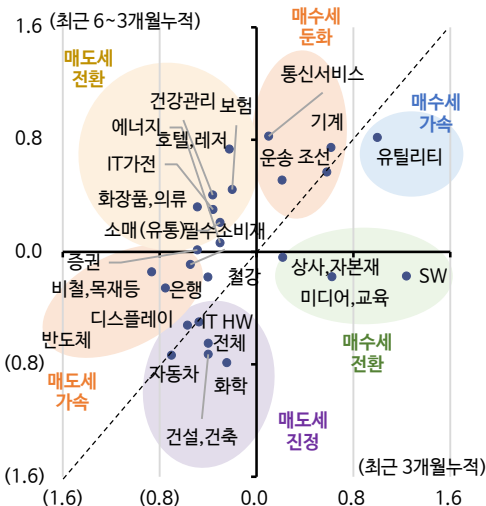


주요국 주도테마_1W 수익률



자료: Bloomberg, WIND, 인포스탁, 신한투자증권

최근 외국인 업종별 수급 사이클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DeepSeek와 Trump 관세 사이의 빈틈

최근 업종전략의 변화를 유발한 두 가지 변수는 DeepSeek 모먼트와 Trump의 통상 정책. AI H/W의 막대한 CapEx에 의구심을 유발하면서 S/W의 활용 측면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시작으로 열린 Trump의 관세 포문도 수출 주력 제품에 있어 부담 작용. 제품이 아니거나(SW·엔터), 미국의 파트너로서 일부 전가 가능한 업종(조선·방산·전력기기) 유효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다라도 최근 매수세 유입 업종은 SW·미디어/교육(엔터)·상사/자본재(방산) 등임. Trump의 통상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DeepSeek 충격의 영향이 적거나 수혜 기대

Hottest Stocks

Global Industry



IT HW | 기회와 우려가 혼재된 시장

- ◆ 주간 상승률: H/W(-0.1%) < 나스닥(+0.3%) < 경비(+1.1%) < 반도체(+3.1%)
- ◆ H/W: 애플은 중국 내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를 위해 딥시크 AI 모델 탑재 검토. 현지 기업과의 협업 → 중국 정부 승인 예상. 보조금 정책이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수혜는 프리미엄 라인업에 집중.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 출시 여부가 판매량 좌우
- ◆ 반도체: AMD는 컨세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데이터센터 성장세 기대치 하회) 시간의 추가 급락(-10%). CPU 점유율 확대는 긍정적이나 ASIC의 추론 시장 잠식은 리스크 요인. 필릭은 건조한 QCT 매출로 시장 기대 상회. 애플(모뎀), 화웨이(라이선스) 고객사 이탈에 우려 집중되며 주가는 시간의 -5% 기록. 중국 보조금 효과, TSMC 가격 인상 등 기회와 리스크 공존

필릭 부문별 실적 추이

자료: 필릭

IT SW | 빅테크 실발 가운데 팔란티어, 스포티파이 급등

- ◆ 주간 상승률: I/T(+2.5%) < 광고(+2.6%) < 데이터(+2.8%) < S/W(+3.2%) < 앱(+3.3%)
- ◆ 1) 알파벳: MS와 마찬가지로 Capa 부족이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의 상단을 눌러 실적 직후 추가 하락. 이러한 배경이 공격적인 25년 CapEx 지출 가이드선 상향으로 이어짐 (750억달러, 기존 약 570억달러). Capa 부족은 클라우드 산업 전반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지만 인프라 효율성 전략은 각각 조금씩 상이
- ◆ 2) 팔란티어: 최근 정부 계약의 확대 및 조정 사항에 주목하며 추가 변동성이 확대되던 가운데, 이번 실적에서 압도적인 민간 고객수 증가+추가 지출의 질 동반 상황(내부보유율 증가, TCV 및 대규모 딜 증가)
- ◆ 3) 스포티파이: 작년 말 소개된 크리에이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라이브러리 확대 및 장기적으로 플랫폼 마진 향상을 기대. 여전히 넷플릭스 성장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

팔란티어 순 신규고객 증가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소비재 | 거세게 닥쳐오는 관세의 영향

- ◆ 주간 상승률: 글로벌 럭셔리(-1.0%) < 경기소비재(-0.1%) < 필수소비재(+1.4%)
- ◆ 관세 이슈가 지배했던 한 주. 관세 발표 앞두고 중국과 조율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던 하나 현재 24년 중국 이커머스의 미국 진출에 많이 기여했던 'De minimis' 조항의 우회 조건이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커머스 및 유통 업종 전반에 긍정적 영향
- ◆ 다수 리테일러들은 관세 인상에 대비해 공급량 변경, 재고 비축, 가격 인상 예고 등의 대응을 미리 한 바 있음. 이번주 뷰티, 음식료, 의류 전반의 약세는 관세 일부 영향
- ◆ 한컴 데커스아웃도어는 25년도 매출 성장 가이드선을 15%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급락. 환율 변동 영향과 프로션 가격 증가, 운송비 증가 예고가 일부 영향을 미침. 동분기 경가 판매가 매우 높고 도매 정리 판매가 매우 낮은 수준은 비정상

국가별 De minimis 한계 차이

자료: Global Express Association, EIU

신재생 | 딥시크 우려에도 갈 길 가는 에너지 기업들

- ◆ 주간 상승률: 태양광(-0.1%) < 나스닥(+0.3%) < 풍력(+2.1%) < 수소(+2.2%)
- ◆ 전력기기업인 Eaton은 추론용 데이터센터 투자로 전환돼 데이터센터용 전력기 판매는 똑같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습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건설에 필요한 기간이 긴 대신 추론용 옛터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건설 가능. 따라서 전력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 가능. 딥시크 우려는 과도하다 판단
- ◆ Vestas 3년 만에 추주환원 체계. CEO는 미국 정책, 금리 등 불안한 외부 변수에도 추주환원 재개할 이유는 경기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라 언급. 주가는 PBR 4배에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실적 성장하는 2H25에 리레이팅 가능할 전망

Vestas 연간 실적 추이

자료: 회사 자료

Hottest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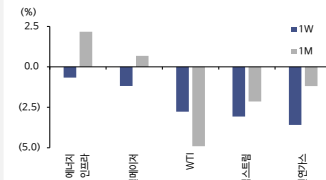
Global Industry



에너지 | 관세로 인해 에너지 인프라 기업 약세, 중장기 성장세 미치는 영향 제한적

- ◆ 주간 상승률: 천연가스(-3.6%) < 유가(-3.1%) < (오일메이저(-1.2%) < (에너지인프라(-0.7%)
- ◆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 지속. 동절기 종료 앞두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와 관세 영향에 따른 LNG 수출 감소 우려가 가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 다만 유럽내 한파 가능성으로 천연가스 하방 압력은 약화될 전망. 원유 재고 증가 및 관세 영향으로 유가도 하락세
- ◆ 중국의 미국 LNG에 대한 15% 관세로 LNG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은 주가 하락. 특히 미국의 LNG 수출기업 세니어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높아진 상황. 다만 세니어 에너지의 중국향 비중 크지 않아 실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 관세는 단기적으로 투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천연가스 및 LNG는 유럽,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

유가스 및 에너지 세그먼트 주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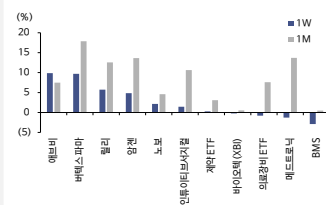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헬스케어 | 비만약 건조한 수요 확인, 타이트한 공급 우려도 완화

- ◆ 주간 상승률: 의료기기(+0.8%) < (바이오테크(-0.2%) < (제약(+0.3%) < (노보(+2.1%) < (필리(+5.7%)
- ◆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대부분의 헬스케어 섹터 보험세를 보인 가운데 실적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주가 차별화 뚜렷해지는 상황. 2월까지 실적 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 일라이 릴리는 25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이던스 발표로 투심 회복. 특히 건조한 비만약 성장세 확인. 공급 우려 완화.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 60% 이상 증가할 전망. 경구비만약 임상 발표 등 투심 개선하는 이벤트도 존재해 주가 상승 호를 판단
- ◆ 노보 노디스크도 호실적 발표. 다만 릴리 대비 경쟁력 약화. 위고비 신규처방 및 매출 성장세가 겐바문드에 뒤처지고 있으며 투심 높일 수 있는 이벤트도 부재. 주가 상승 추세 제한적일 전망
- ◆ 버텍스 파마 비마약성 진통제가 급성 통증으로 승인 받은 가운데 영노병 및 옹신경통 임상 진행되고 있어 주가 모멘텀 이어진다는 판단

미국 헬스케어 섹터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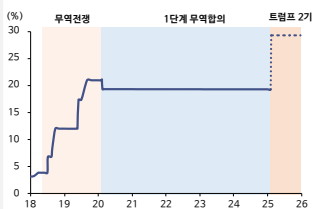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중국 | 관세 마찰에도 덤핑주 혼풍으로 기술주 강세

- ◆ 주간 상승률: 상해(+0.6%) < CSI300(+0.7%) < (심천(+2.3%) < (차이넥스트(+2.8%)
- ◆ 관세 마찰 노이즈에도 덤핑주 여파로 기술주 중심 강세 흐름. 2/4(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공식 발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1) 석탄 및 LNG에 15% 추가 관세 부과, 2) 원유, 농기계, 고배기량 차량 및 픽업트럭에 10% 추가 관세 적용
- ◆ 중국이 보복 관세 적용 시점을 2월 10일로 설정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 미국의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제외한 점 역시 무역 갈등 확산을 방지 의도
- ◆ 덤핑주의 부상은 위험선호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미국의 기술 규제를 돌파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져, 정부에도 AI 정책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 수급 측면에서 기술주 풀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IT H/W 뿐 아니라 IT S/W(응용, 플랫폼)까지 온기 확산. AI급기는 반도체(시청/GPU/메모리), 인프라(IDC/서버/광모듈/냉각장치), 소프트웨어(알고리즘/클라우드/플랫폼) 전반에 낙수효과 가져올 전망확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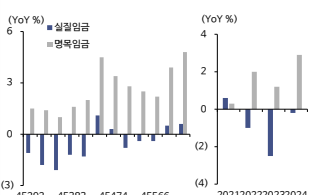
자료: PHE



일본 |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일본 증시 약세

- ◆ 주간상승률: 토픽스코어(-1.2%) < (니케이(-1.1%) < (토픽스(-1.1%)
- ◆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보편 부과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본 증시 하락. 관세에 취약한 자동차, 기계 업종 급락. 관세 부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증시 회복 제한
- ◆ 3QFY24 연화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FY24 가이던스 상황 제한. IT 서비스 & 전력 관련 기업들은 양호한 주가를 바탕으로 가이던스 상향. 은행주 최고 실적 발표에도 가이던스 상향 부재로 차이 실현 출회. 혼다-닛산의 합병 철회, 파나소닉의 구조 개혁 발표(TV 사업 매각 가능성) 등으로 중국 변동성 확대
- ◆ 일본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지속 발언과 12월 실질금리 (+) 지속되면서 10Y 장기금리는 1.99%까지 상승.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연화 152엔 수준까지 절상 지속
- ◆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일본 장기 금리는 미국의 장기 금리 하락에 따라 동반 조정. 연화는 154엔 절상
- ◆ 차주 일본 기업 실적 마무리. 미-일 금리차 축소로 인한 연화 강세, 관세 불확실성 지속으로 상승 모멘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차주 이시바총재-트럼프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투자, 방위비 증액 발표 예상
- ◆ 11월 건국기념일 휴경 / 10월 후지쿠리(5863), 12월 소프트뱅크그룹(9984), 14일 보험사 실적 발표

12월 실질금리 2개월 연속 증가



자료: 후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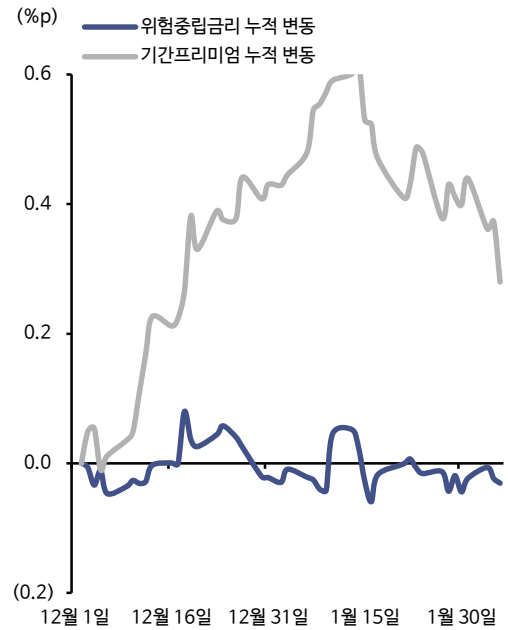


느리지만 끝나지 않은 인하 사이클

주간 미국 국채 2년 금리는 1.5bp 상승, 10년 금리는 10.4bp 하락하며 볼 플래트닝 전개. 1분기 국채발행계획(QRA) 공표 직후 장기물 국채 강세폭 확대. 1분기 예상 차입 규모는 작년 4분기 발표치 대비 90억달러 하향 조정된 8,150달러로 제시. 향후 조달 방식 관련 포워드 가이드선도 유지되며 증장기 이표채 조달 비중 확대 우려 완화. 국채 금리 기간 프리미엄 중심 급락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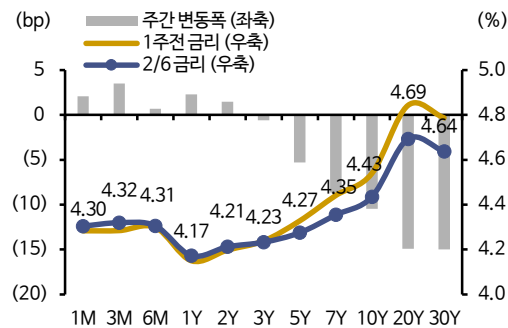
단기간 수급 부담 안정된 만큼 통화정책 경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금일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 경계 필요하나 장기물 금리 안정 추세는 유지 가능 예상. 어제 발표된 4분기 단위 노동비용은 시장 예상치(3.4%) 하회한 3.0%. 서비스 PMI 둔화세도 고려하면 고용 초과수급 완화 기대 유효.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도 증장기 시야에서의 인하 사이클 유효 판단

기간프리미엄 변동성 안정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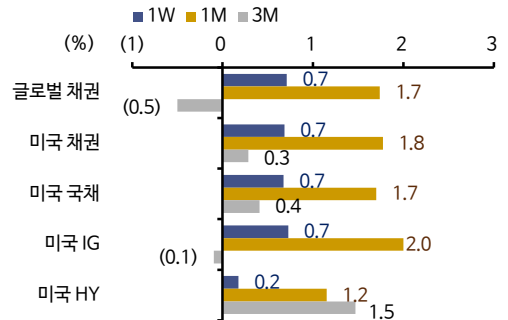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채권 주요 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안재균 ✉ jk.ahn@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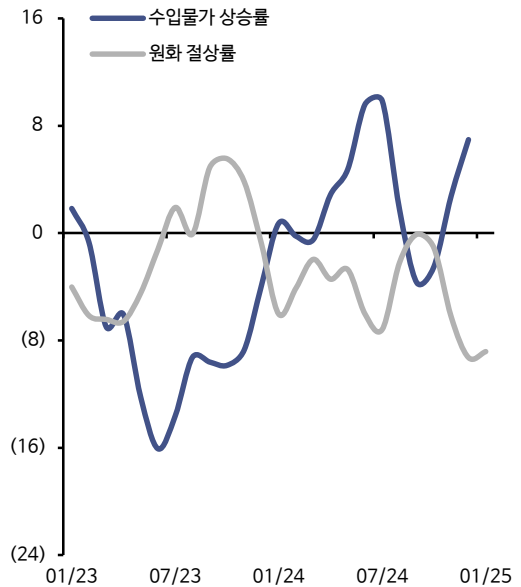
고환율 속 CPI 2%대 재진입

주간 국고 3년 1.8bp 상승, 국고 10년 5.4bp 하락하여 불 플래트닝 전개. 미국 국채 2/10년 스프레드가 주간 12bp 축소되면서 플래트닝 흐름을 보인 것에 한국 채권시장도 연동. 1월 CPI가 전년대비 2.2% 상승하여 5개월 만에 2%대 재진입했지만, 글로벌 플래트닝 흐름에 동조되며 한국도 장기물의 상대적 강세 지속 전개

12월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약 7% 상승하여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당시 원화도 7% 이상 절하됐었고, 12월에도 9% 이상 절하되며 수입물가 상승 주도. 1월에도 9% 가량 원화 절하 발생해 당분간 수입물가 오름세 이어질 전망. 2%대 CPI 지속 우려는 중립 이하 기준 금리 돌입 기대를 낮추는 요소. 미국 금리 하락 속 투심은 다소 개선됐으나, 강한 금리 하락 베팅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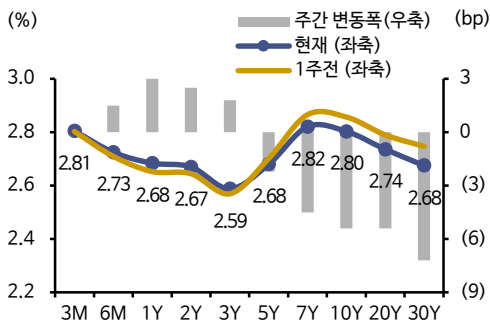
원화 약세 속 수입물가 상승, 당분간 2%대 CPI

(%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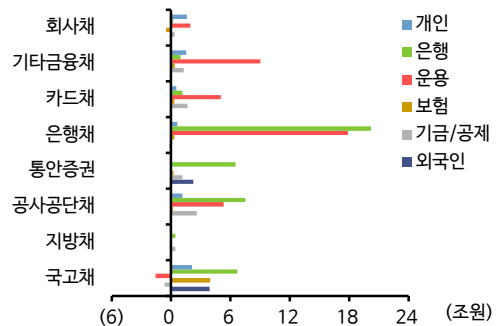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한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최근 3개월 투자자별 채권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Credit

정혜진 ✉ hyejin.j@shinhan.com



여전채-회사채 균형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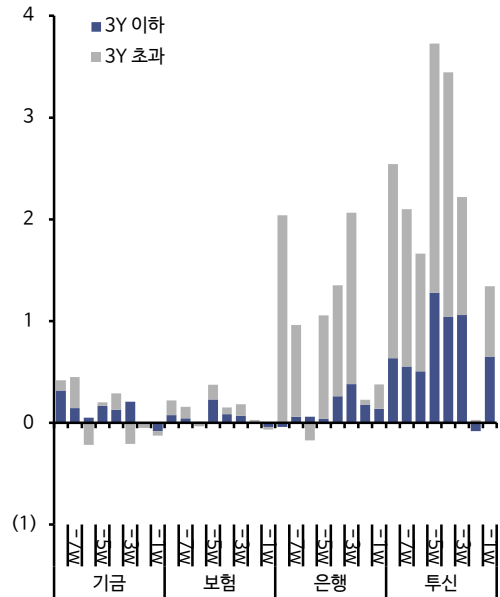
건보 자금 집행에 따른 거래 유동성 효과로 단기 구간 AA급 여전채 중심 강세 부각. AA- 여전채 스프레드 1년물 5.2bp, 3년물 1.3bp 축소

AA- 회사채 3년 스프레드 60bp 하단 돌파 후 58.5bp 기록. 1월 수요예측 흥행에 따른 강세 발행 효과가 지속적으로 민평 금리 반영. 설 연휴가 겹쳐 월간 발행금액(10.7조원)은 전년 동기(13.2조원)대비 감소했으나, 모집예정금액 대비 초과율은 551.4%에서 710.8%까지 상승

회사채 대비 여전채 고평가 국면 조정 전망. 3년 물 기준 여전채-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 갭 AA+급 -6.6bp(역전), AA-급 0.9bp. 작년에도 레포펀드 주도 강세로 스프레드 갭 각각 -7.5bp, 0.5bp까지 축소. 금리 인하 앞둔 베타성 자금유입 감안해도 회사채 대비 고평가 구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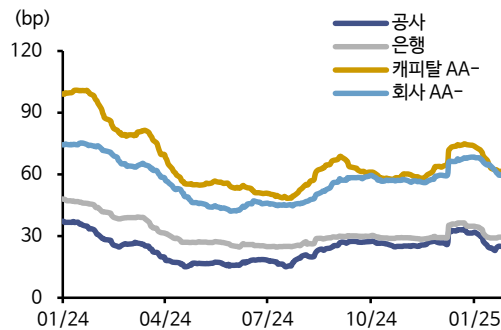
주간 금융채 순매수 규모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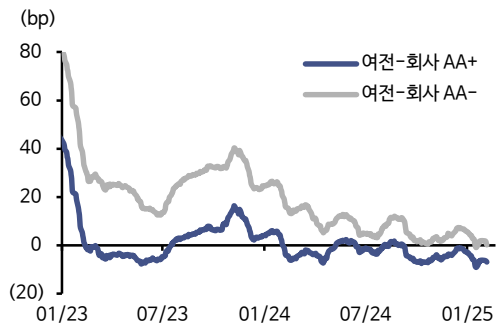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3년 기준)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여전채-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 갭 (3년 기준)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Commodity · REITs

하건형 ✉ keonhyeong.ha@shinhan.com

김선미 ✉ sunmi.kim@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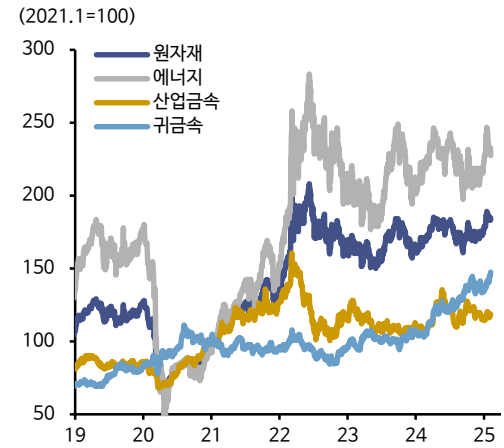


엇갈린 에너지와 금 가격 향방

원자재 간 가격 차별화 지속.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영향이 가격에 반영. 트럼프 행정부 일부국 관세 유예에도 중국 관세 부과 강행으로 금 수요 촉발해 금 가격 2,900달러선 상승하며 최고치 경신. 반면 WTI 가격은 화석 연료 공급 확대, 지정학 위험 완화 기대에 70달러 초반 하락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안정 위해 에너지 가격 하락 유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고려 시 뚜렷한 생산 확대 없이는 WTI 가격 급락은 나오지는 않겠으나 완만한 속도의 하락 가능. 금 가격은 최근 금 수요가 급증한 중국 경기 회복 여부에 좌우. 중국 부양책, 트럼프 관세 정책 중요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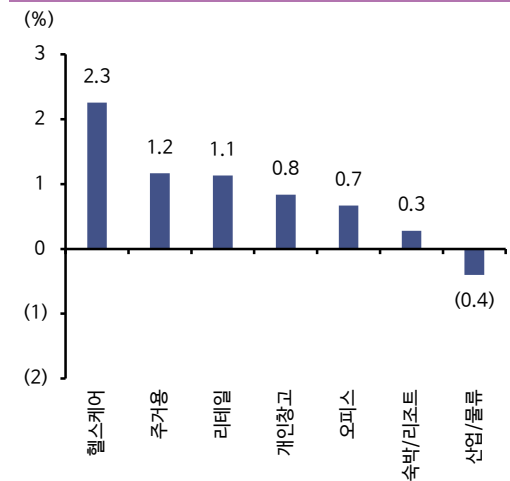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불확실한 투자환경, 구조적 성장에 집중

전주 글로벌 리츠 1.1% 상승. 미국 국채 10년 금리 하락 및 단기 수급 부담 안정화, 관세 부과 유예 등이 주요 원인. 미국, 유럽 1.3% 내외 상승한 반면 일본, 싱가포르 1%대 하락. 섹터별로는 금리 민감섹터인 헬스케어, 주거용 리츠 강세, 딥시크 쇼크에 데이터센터, 연휴 모멘텀 낮아진 호텔, 관세 불확실성의 산업물류 리츠 주가 부진

미국 관세 부과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변동성 확대 예상. 주요 상장 리츠의 긍정적 2025년 전망 무력화 가능성 상존. 수급 효과 가시화되는 하반기 전까지는 제한된 투자자금 집중되는 구조적 성장 섹터(데이터센터, 임대주택)에 선별적 대응 필요

글로벌 리츠 섹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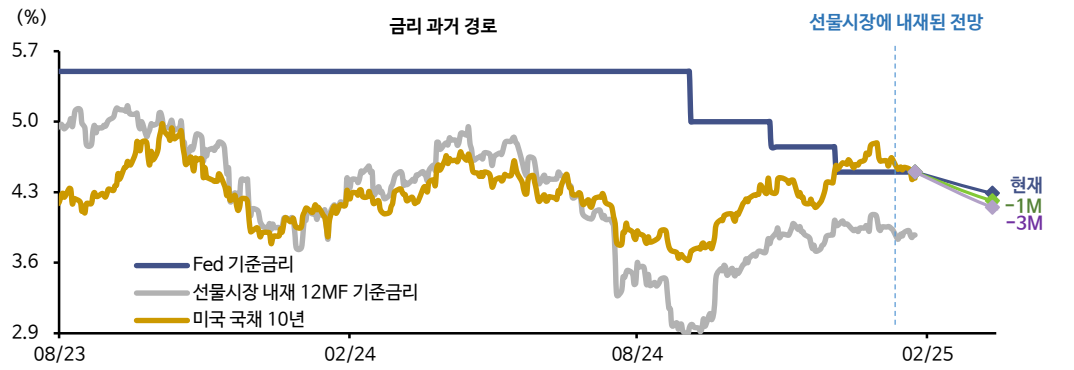
주: 미국, 유럽, 아시아 섹터별 주간수익률 평균 기준



Chartbook &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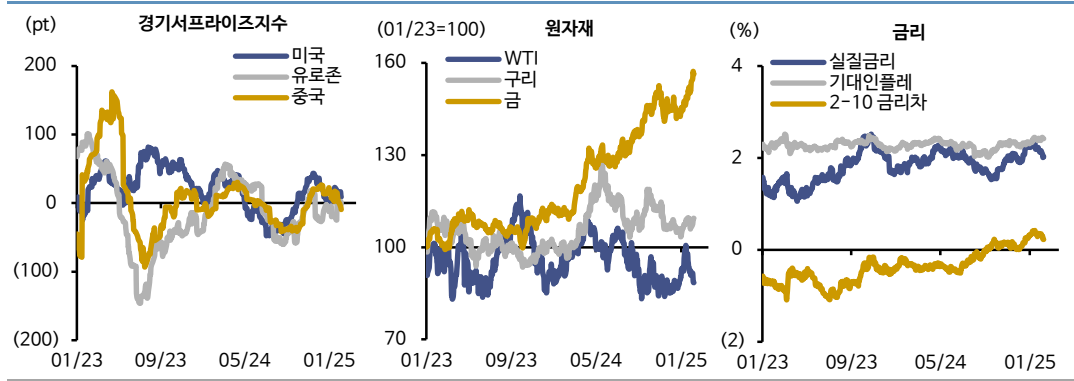


통화정책: Fed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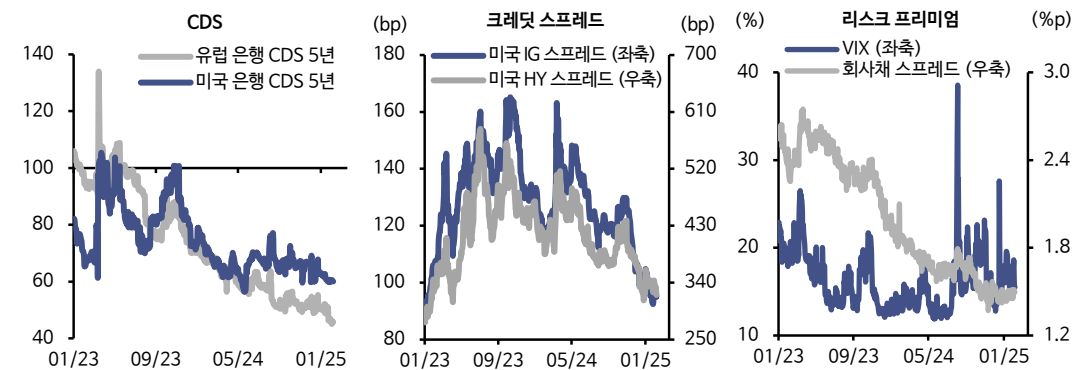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경기: 금융시장 내재 경기 모멘텀 지표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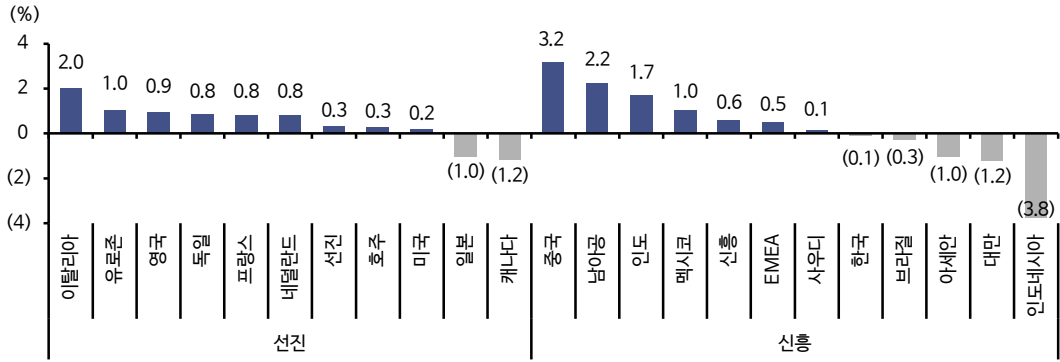
위험: 주요 위험지표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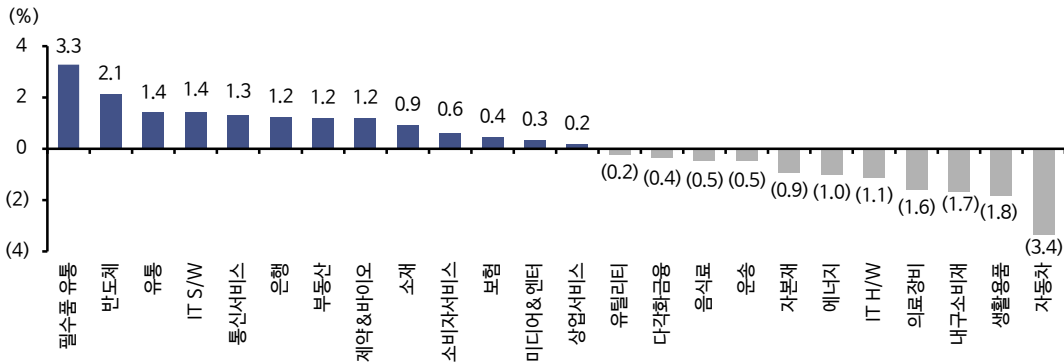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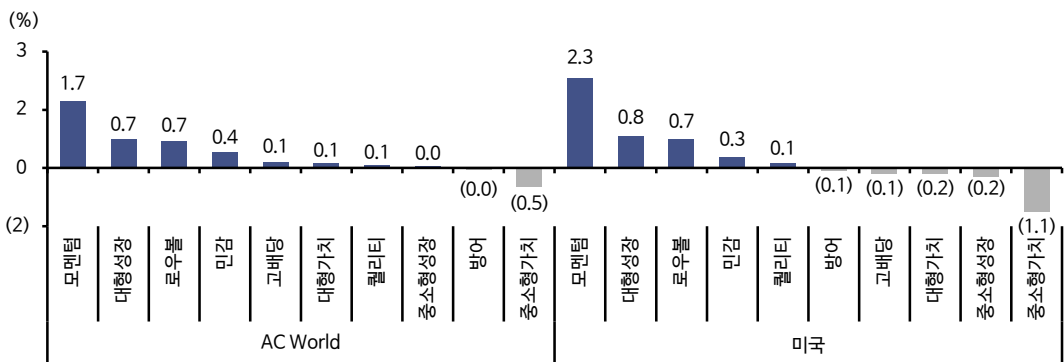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업종별 주간 수익률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스타일별 주간 수익률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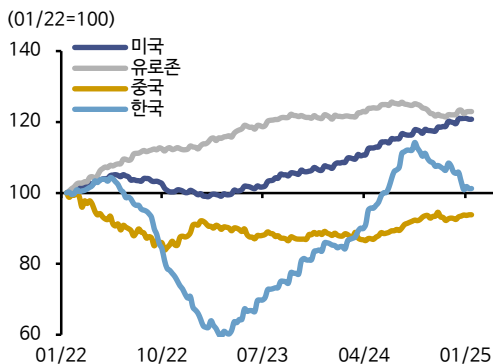


Valuation & Earnings Table

	(x, %)	Valuation							Earnings						
		수익률 (%)			PER (x, %)			PBR	배당 수익률	12MFEPS 모멘텀			EPS 성장률		
		1W	1M	3M	현재	1M	3M			1M	3M	FY1	FY2	FY3	
국가	세계	0.3	2.6	2.4	18.6	2.4	1.4	3.2	1.9	0.2	1.0	9.3	11.8	12.9	
	선진	0.3	2.7	3.0	19.7	2.5	1.6	3.5	1.8	0.2	1.3	7.2	11.7	12.8	
	미국	0.2	1.9	2.9	22.6	2.2	0.2	5.0	1.3	(0.3)	2.8	10.2	13.9	14.2	
	유로존	1.0	6.6	10.0	14.1	6.8	8.9	1.9	3.3	(0.2)	1.1	(1.3)	8.2	11.2	
	독일	0.8	8.4	14.2	14.2	8.4	12.7	1.8	2.9	(0.0)	1.3	0.9	10.2	13.2	
	프랑스	0.8	7.4	8.6	14.7	8.4	8.5	2.0	3.2	(0.9)	0.1	(4.5)	8.6	10.6	
	영국	0.9	5.6	6.7	12.1	5.8	3.3	1.9	3.8	(0.1)	3.3	(2.3)	7.1	10.2	
	일본	(1.0)	(0.3)	1.0	14.3	(0.2)	(1.1)	1.5	2.5	(0.0)	2.2	6.3	10.3	9.1	
	호주	0.3	3.0	4.0	18.5	4.1	1.6	2.5	3.6	(1.1)	2.3	(1.5)	4.8	3.2	
	신흥	0.6	2.2	(2.6)	12.1	2.1	(1.3)	1.8	2.9	0.0	(1.3)	22.6	12.9	13.0	
	한국	(0.1)	1.2	(1.8)	8.7	5.7	4.2	0.9	2.5	(4.3)	(5.8)	108.3	15.2	15.5	
	중국	3.2	6.7	0.4	10.4	6.1	(0.0)	1.4	2.6	0.6	0.4	16.8	8.9	11.8	
	브라질	(0.3)	6.9	(5.4)	7.6	9.8	(7.2)	1.4	6.4	(2.6)	1.9	(3.0)	12.6	12.2	
인도	1.7	(1.8)	(5.1)	22.1	0.2	(6.1)	3.9	1.4	(2.1)	1.0	6.9	17.3	15.0		
섹터	에너지	(1.0)	1.2	(3.9)	11.7	2.5	(0.7)	1.6	4.3	(1.3)	(3.2)	(21.4)	5.6	11.7	
	소재	0.9	6.3	(4.7)	15.5	9.4	(2.0)	1.9	2.7	(2.8)	(2.8)	(2.1)	13.9	13.4	
	산업재	(0.7)	3.3	(1.5)	19.7	3.4	(1.9)	3.2	1.8	(0.1)	0.4	6.7	12.5	13.3	
	경기소비재	(0.3)	3.0	8.9	21.7	2.7	9.0	4.2	1.1	0.3	(0.1)	8.5	12.5	15.0	
	필수소비재	0.4	3.9	0.9	19.2	4.5	2.3	4.3	2.8	(0.5)	(1.4)	4.1	5.9	8.2	
	헬스케어	0.2	5.7	(0.9)	17.9	5.9	(2.6)	4.3	1.9	(0.2)	1.7	5.3	18.4	11.7	
	금융	0.4	6.3	4.7	13.2	5.1	2.8	1.8	2.8	1.2	1.9	14.4	6.3	10.8	
	IT	1.0	(2.5)	1.7	26.3	(2.7)	(1.1)	8.3	0.8	0.3	2.9	24.0	21.1	17.9	
	커뮤니케이션	0.5	5.0	10.5	20.2	5.0	7.5	4.1	1.2	(0.1)	2.9	26.0	13.8	13.2	
	유틸리티	(0.2)	1.3	(1.6)	14.8	1.4	(2.1)	1.8	3.7	(0.1)	0.4	10.8	5.3	6.8	
부동산	1.2	3.8	(1.5)	24.3	3.6	(1.9)	1.8	3.6	0.2	0.5	0.2	6.0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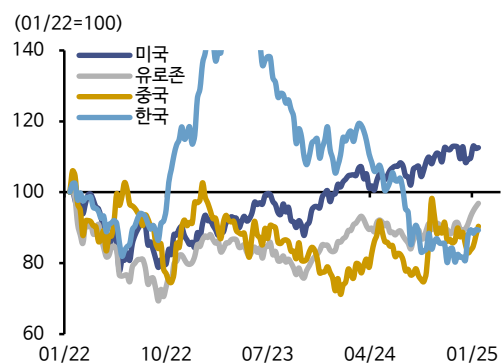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EPS 추이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PER 추이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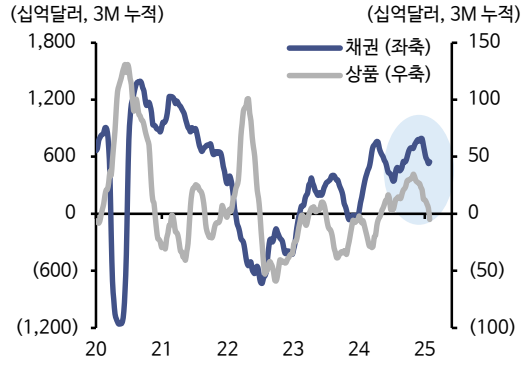


주식형 펀드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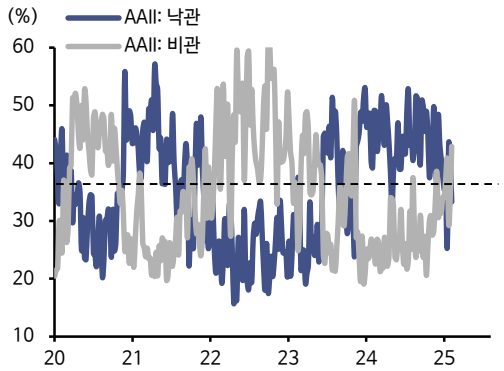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FICC 펀드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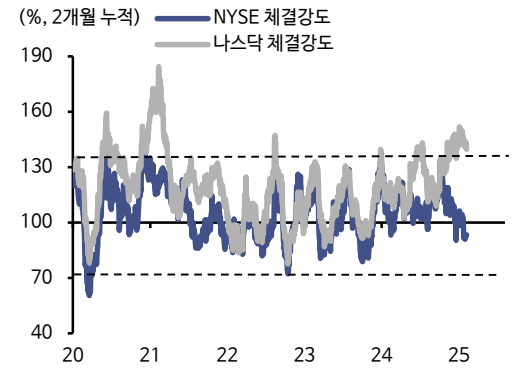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투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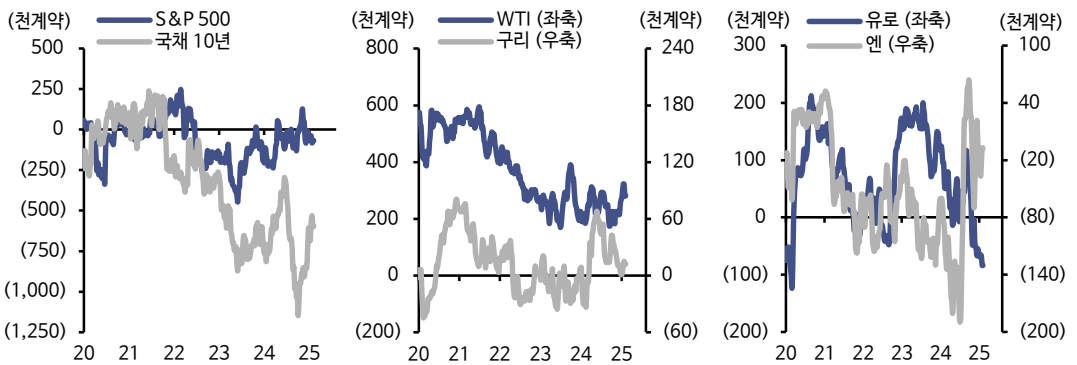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수급강도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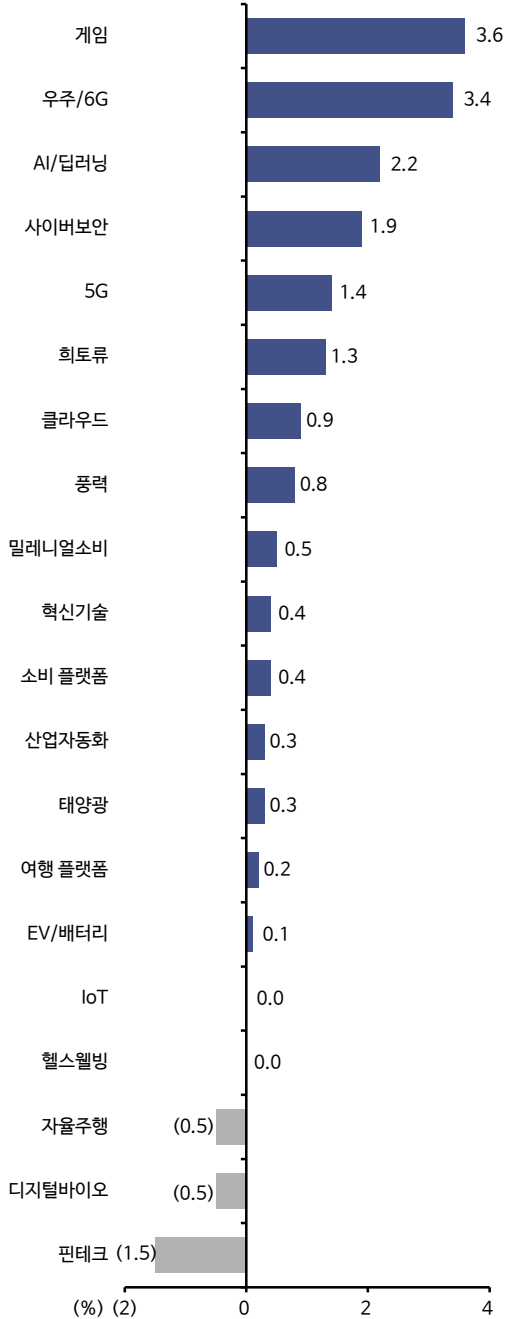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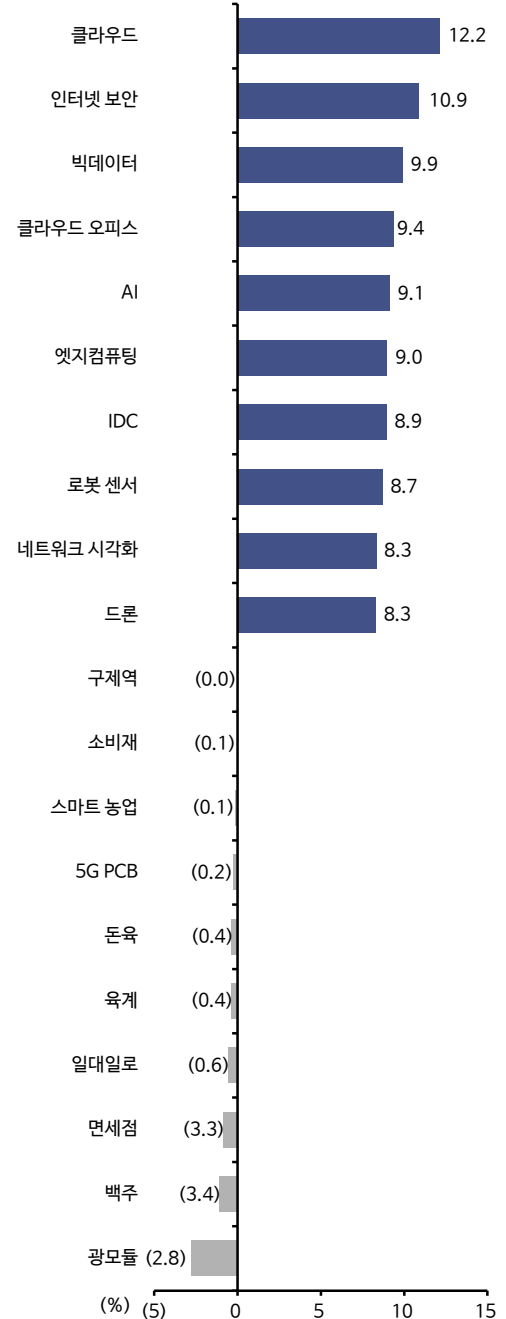


미국 테마 주간 수익률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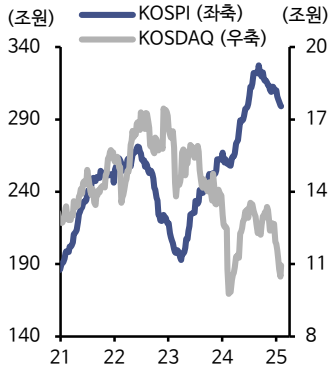
중국 테마 주간 수익률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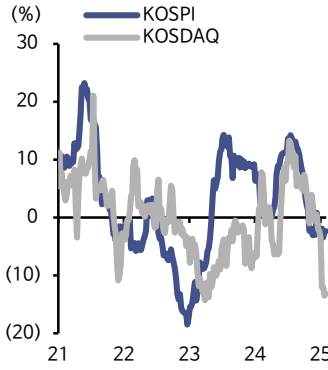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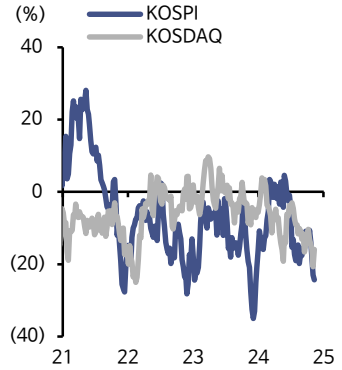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EPS 3개월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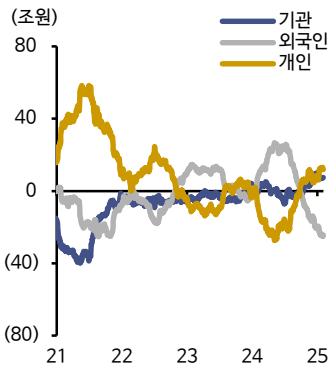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이익수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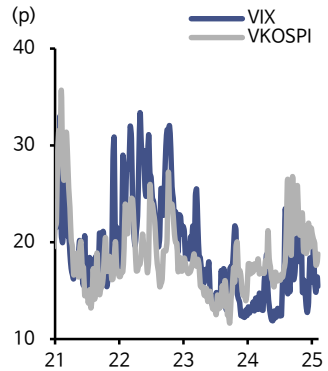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순매수대금 (6M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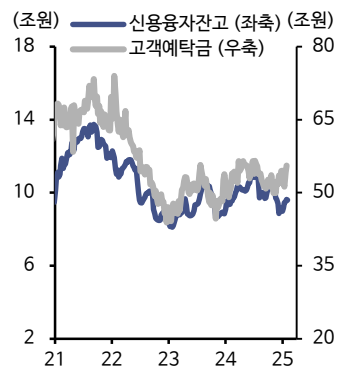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투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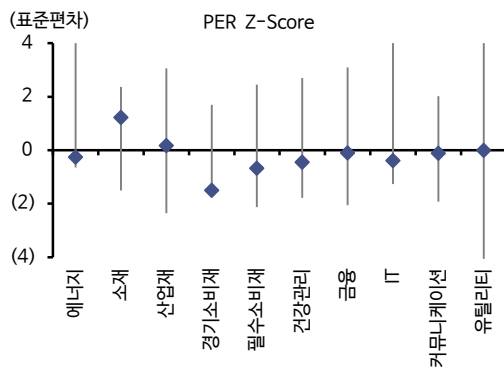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식시장 용자 및 대기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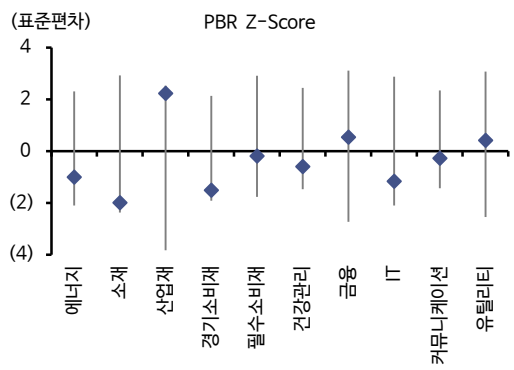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섹터별 PER 분포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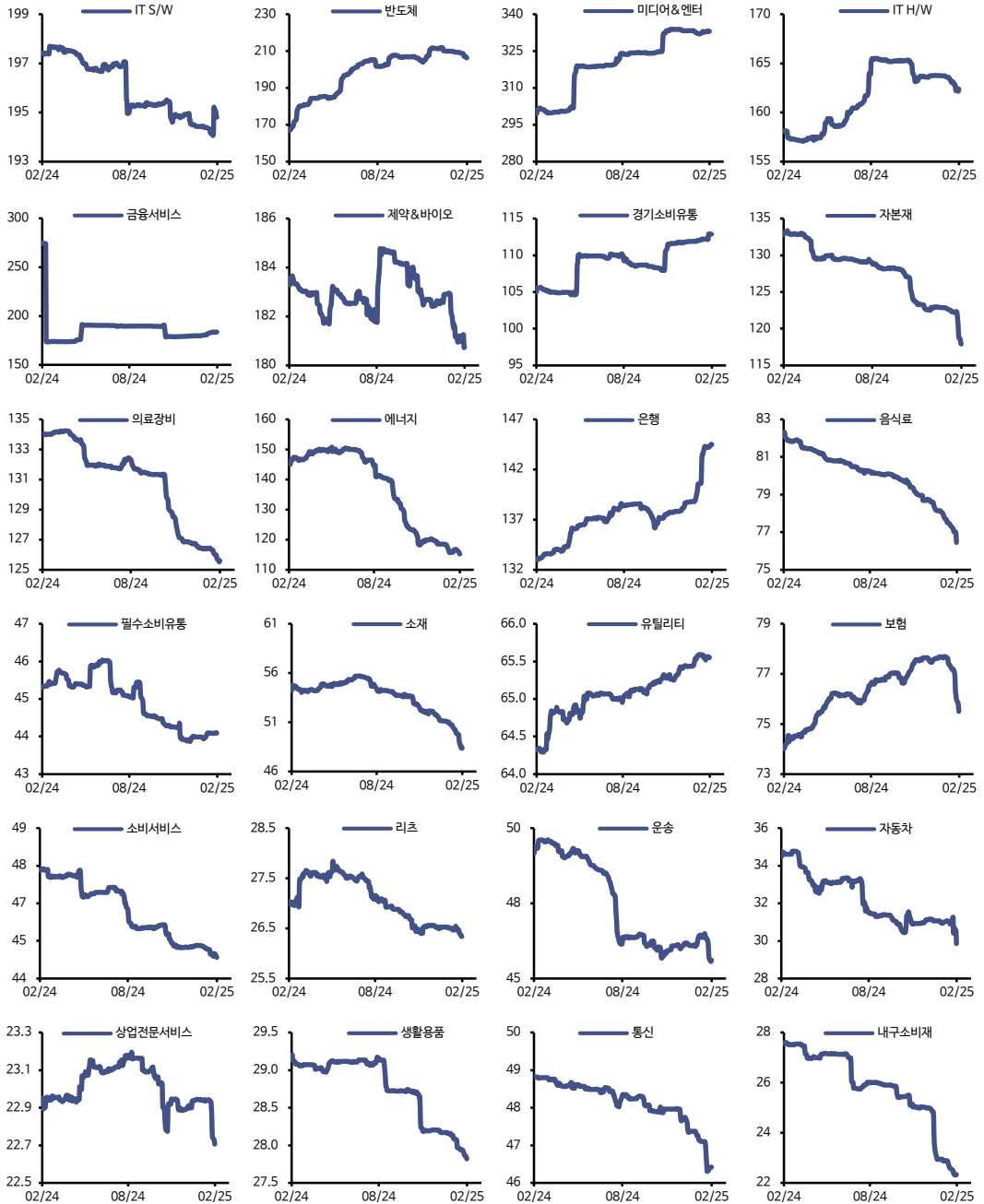
섹터별 PBR 분포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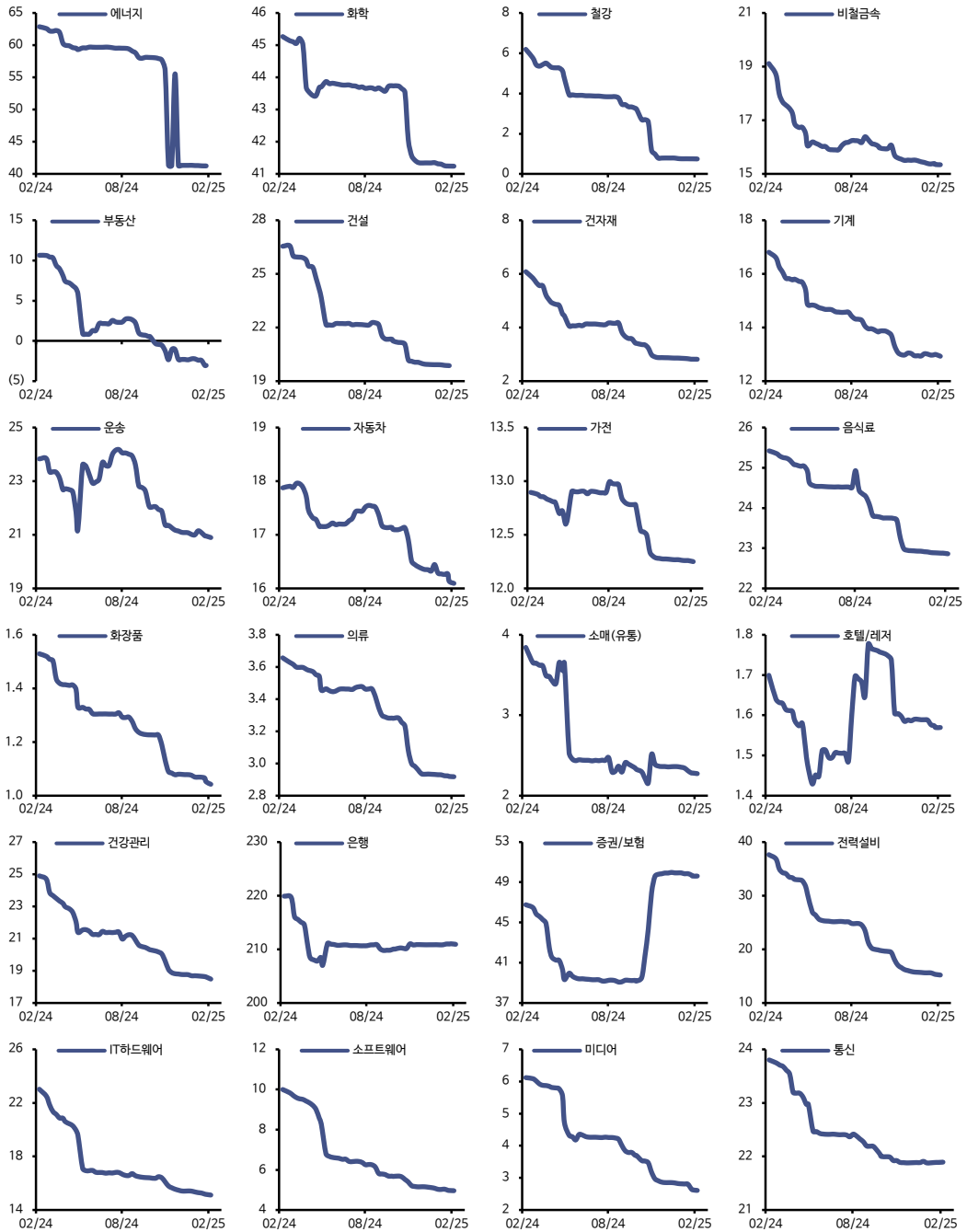
업종별 2025년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십억달러)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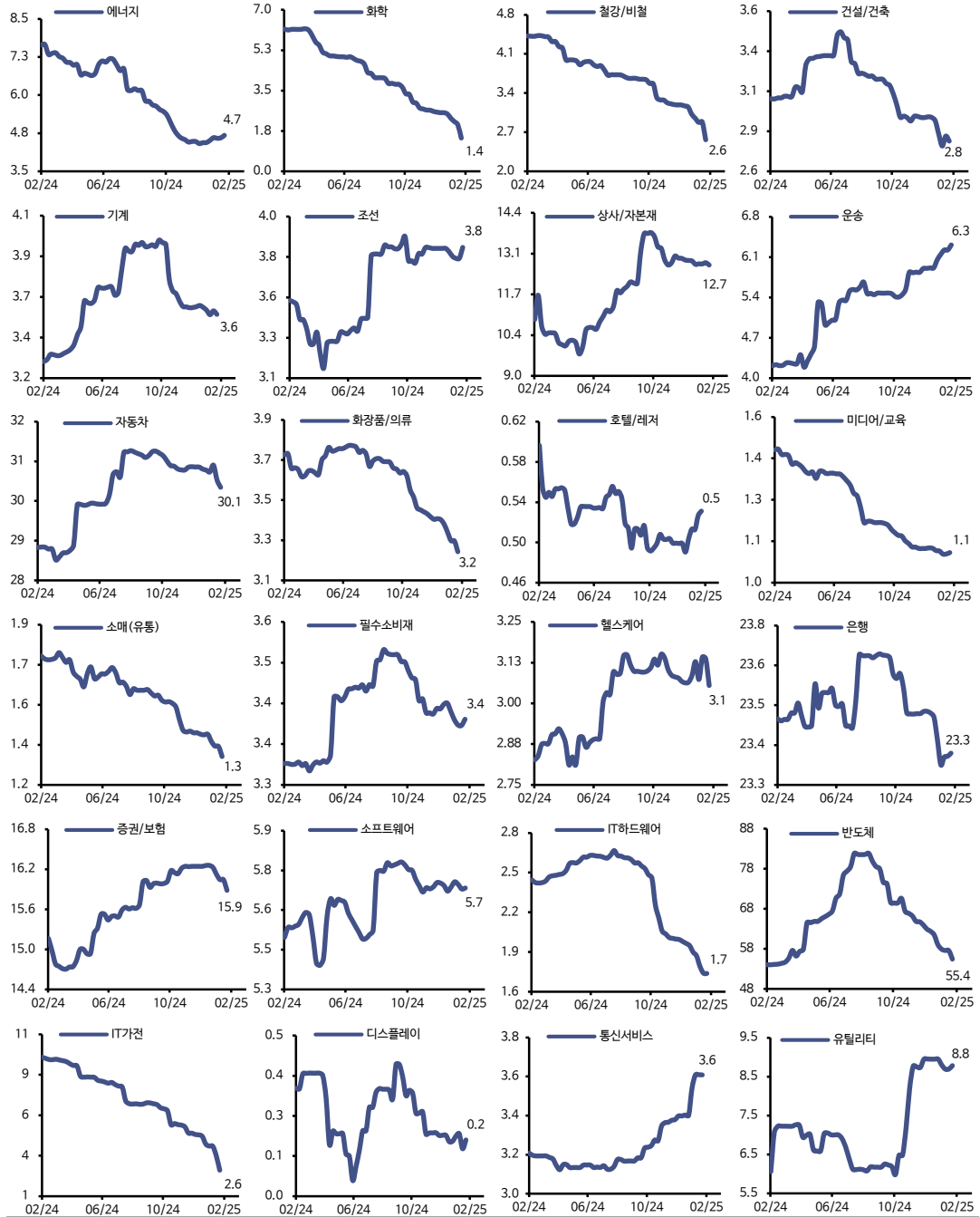
업종별 2025년 지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백억위안)



자료: WIND,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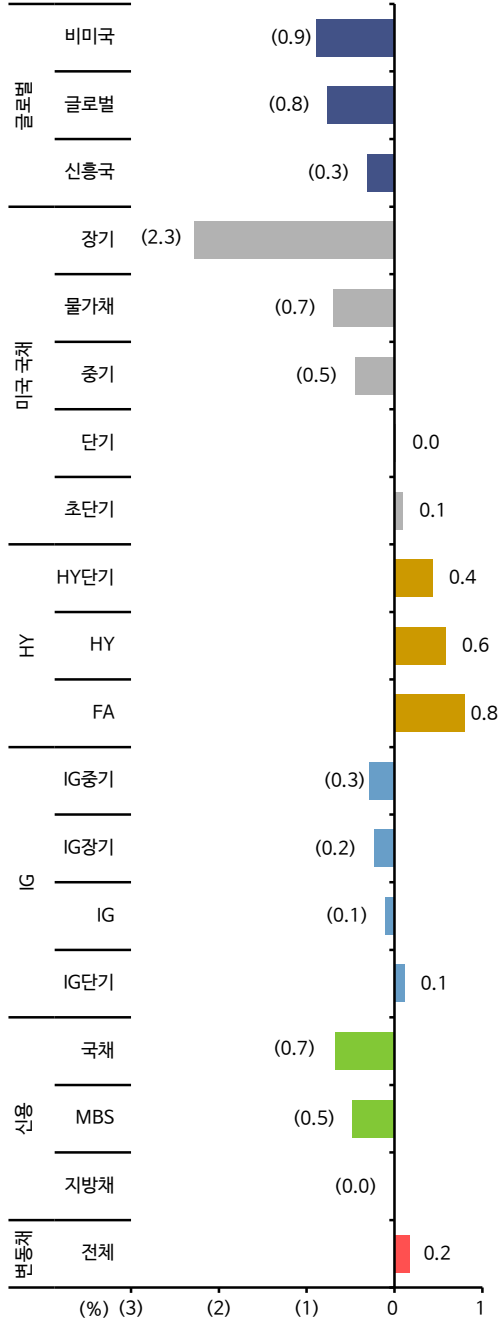
업종별 2024년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단위: 조원)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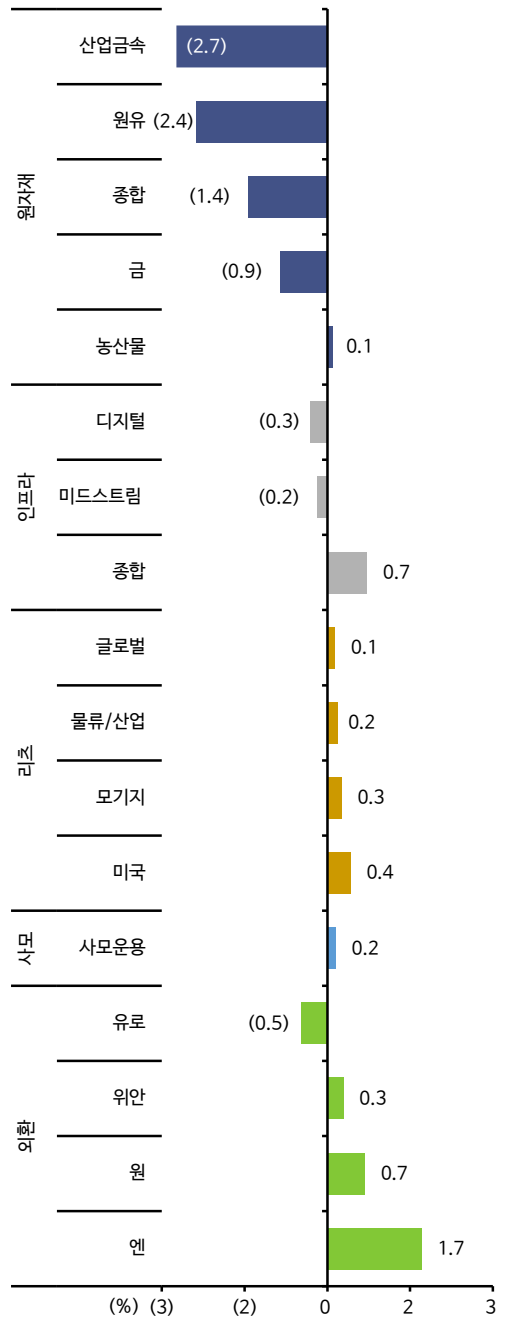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 주간 수익률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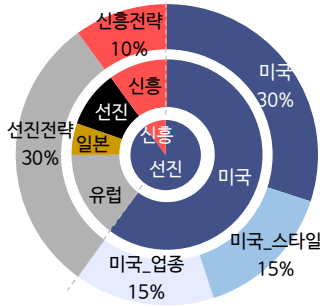
대체: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통화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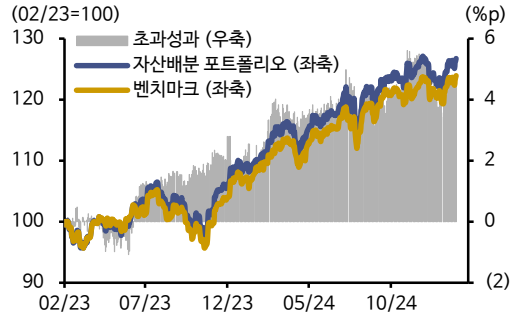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① 글로벌 자산배분 주식 부문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주식	64.0	60.0	4.0		1.7	1.1	15.4
선진	54.0	54.0	0.0				
미국	39.5	36.0	3.5				
S&P500 ETF	21.5	18.0	3.5	SPY.US	1.8	2.6	46.8
스타일배분	3.0	0.0	3.0				
성장 ETF	3.0	0.0	3.0	VUG.US	0.5	5.8	73.2
업종 배분	15.0	0.0	15.0				
핀테크 ETF	2.0	0.0	2.0	FINX.US	1.5	6.7	17.8
운송 ETF	2.0	0.0	2.0	IT.US	2.0	(4.7)	(3.6)
IPO ETF	2.0	0.0	2.0	FPX.US	8.5	14.7	12.4
인프라 ETF	3.0	0.0	3.0	PAVE.US	2.8	(6.9)	13.8
은행 ETF	3.0	0.0	3.0	KBE.US	7.6	(2.1)	10.6
클라우드 ETF	3.0	0.0	3.0	SKYY.US	4.7	13.8	26.0
기타 선진	14.5	18.0	(3.5)				
유럽 ETF	10.9	10.9	0.0	FEZ.US	7.8	7.4	22.2
일본 ETF	3.6	3.6	0.0	DXJ.US	(1.2)	(1.8)	30.4
기타 선진	0.0	3.5	(3.5)				
신흥	10.0	6.0	4.0				
중국	7.7	1.9	5.8				
A500 ETF	3.0	0.0	3.0	560510.SS	3.0	(5.2)	(4.7)
CSI 300 ETF	4.7	1.9	2.8	2823.HK	0.8	(7.3)	5.6
홍콩 H ETF	0.0	0.0	0.0	2828.HK	7.7	4.8	6.6
기타 신흥국	2.3	4.1	(1.8)				
한국 ETF	1.2	0.7	0.5	EWY.US	1.5	(7.0)	(12.9)
인도 ETF	1.1	1.1	0.0	INDA.US	(3.4)	(7.8)	15.0
신흥국 ETF	0.0	2.3	(2.3)	EEM.US	2.2	(3.5)	16.0

자료: LSE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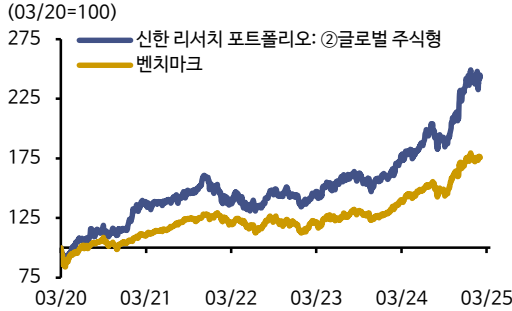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채권	28.0	30.0	(2.0)		0.6	(0.3)	0.1
미국 국채	7.8	6.0	1.8				
국채 단기	1.7	0.9	0.8	SCHO.US	0.0	0.1	0.0
국채 중기	3.9	3.6	0.3	VGIT.US	0.8	0.2	(1.3)
국채 장기	1.7	1.1	0.6	VGLT.US	3.1	(0.1)	(12.3)
물가채	0.6	0.5	0.1	TIP.US	2.1	0.8	0.4
미국 크레딧	6.2	6.0	0.2				
MBS	2.8	3.0	(0.2)	MBB.US	1.1	0.3	(2.7)
IG 단기	1.2	0.2	0.9	VCSH.US	0.4	0.2	3.0
IG 중기	1.3	1.4	(0.1)	VCT.US	1.0	0.1	1.3
IG 장기	0.3	0.7	(0.4)	VCLT.US	2.4	(0.7)	(5.1)
HY 단기	0.1	0.2	(0.0)	SJNK.US	0.3	(0.1)	2.2
HY 중기	0.4	0.5	(0.0)	HYG.US	0.6	0.3	4.7
비미국	14.0	18.0	(4.0)				
전체	7.0	7.5	(0.5)	IAGG.US	0.9	(2.1)	3.9
선진	6.0	6.0	0.0	BNDX.US	0.9	(0.5)	1.9
신흥	1.0	4.5	(3.5)	EMLCUS	1.8	(0.8)	(5.0)
대체	8.0	10.0	(2.0)		1.9	(0.2)	3.9
상품	4.0	5.0	(1.0)				
금	1.5	1.5	0.0	GLD.US	8.3	7.2	51.0
원유	1.0	2.0	(1.0)	USO.US	(2.4)	1.2	9.9
산업금속	1.3	1.0	0.3	DBB.US	2.9	(5.1)	(7.9)
농산물	0.2	0.5	(0.3)	DBA.US	4.7	10.1	37.6
리츠	4.0	5.0	(1.0)				
물류/산업	1.5	2.0	(0.5)	INDS.US	5.5	(3.9)	(11.0)
미국 부동산	2.0	2.0	0.0	VNQ.US	4.1	(1.5)	0.0
한국 리츠	0.5	1.0	(0.5)	329200.KS	(0.6)	(3.0)	(10.2)



포트폴리오: ② 글로벌 주식



종목명	수익률 (%)			종목명	수익률 (%)		
	1M	3M	편입후		1M	3M	편입후
미국/선진				ETF			
엔비디아	(8.2)	(13.6)	454.1	S&P500	2.6	1.4	34.7
브로드컴	1.2	25.9	191.1	전력 자동화 ETF	2.0	-	(3.0)
일라이 릴리	12.6	9.1	41.8	단기채 (USD)	(0.0)	(0.0)	(0.3)
필라티어	59.0	99.1	437.1	단기채 (CNY)	0.0	0.5	9.7
코스트코	14.1	15.0	24.6				
테슬라	(5.1)	26.1	87.6				
오라클	6.4	(7.5)	4.0				
로켓 랩 USA	(1.0)	105.6	265.2				
아머 스포츠	9.5	67.9	104.8				
아마존	7.5	13.7	28.0				
킨더 모건	(3.7)	1.4	1.9				
GE 베르노바	1.7	11.3	11.4				
스포티파이	34.9	56.5	56.8				
세니아 에너지	(2.2)	8.2	(2.2)				
마벨	2.6	26.9	2.3				
키네틱 홀딩스	5.3	10.9	5.5				
메드트로닉	13.7	3.1	10.8				
TSMC	(0.4)	4.6	(6.9)				
델	(12.7)	(23.2)	(7.7)				
버티브	(8.5)	(2.1)	(22.5)				
중국/신흥							
공상은행	0.0	8.8	6.4				
잉위커	0.1	17.0	11.9				
메이디그룹	(4.8)	0.2	(6.8)				
광신과기	(3.5)	6.2	(3.2)				

포트폴리오: ③ 국내 주식



종목명	수익률 (%)			종목명	수익률 (%)		
	1M	3M	편입후		1M	3M	편입후
삼성전자	(3.4)	(5.8)	(34.5)	SK	2.5	(3.1)	(7.1)
SK하이닉스	1.9	3.9	140.8	LG	(1.2)	(2.9)	(1.5)
HD현대일렉트릭	0.5	19.7	28.2	금호석유	16.7	(17.6)	(19.4)
알테오젠	24.3	0.1	121.2	한화솔루션	19.6	6.7	15.6
삼성바이오로직스	15.1	6.1	21.7	HL만도	(4.2)	13.2	(17.9)
삼성중공업	13.4	30.5	0.3	한화엔진	19.4	54.2	58.5
현대글로벌비스	4.7	16.1	16.5	하이브	16.5	17.3	23.6
현대로템	36.7	13.7	10.0	LG전자	(5.6)	(11.8)	(45.0)
하나금융지주	6.2	(0.8)	1.5	풍산	2.3	(19.1)	(16.0)
NAVER	11.3	31.6	22.1	한국전력	6.1	(7.8)	5.5
기아	(1.7)	4.0	53.7	에코프로비엠	4.9	(24.8)	2.1
현대모비스	2.9	3.7	(4.0)	대한유화	12.5	(8.7)	(32.7)
S-Oil	1.5	0.0	(5.0)	두산에너빌리티	28.8	14.8	32.7
LG에너지솔루션	(5.4)	(12.4)	(24.0)	넷마블	(13.6)	(17.9)	(29.5)
셀트리온	(1.5)	2.6	16.3	HS효성첨단소재	5.4	(10.3)	5.5
BNK금융지주	13.1	20.6	11.4	대주전자재료	19.4	0.6	(6.4)
KT&G	7.7	1.9	1.9	삼성전기	2.8	13.9	(11.3)
DGB금융지주	12.4	12.0	4.1	리노공업	3.4	22.9	3.3
카카오	15.7	23.9	19.1	KT	4.2	4.9	33.5
현대차	(3.8)	(1.5)	5.9	에이치브이엠	(18.5)	11.4	38.7
아모레퍼시픽	9.1	2.9	9.2	LG유플러스	0.2	1.6	(7.4)
코스맥스	9.6	0.7	14.0	POSCO홀딩스	(7.4)	(24.8)	(38.3)
삼성화재	2.1	6.0	(2.4)	코웨이	22.9	25.5	21.0
DB손해보험	(3.2)	(10.6)	3.4	현대오토에버	9.9	14.8	4.1
메리츠금융지주	5.1	4.0	23.8	SBS	(2.9)	50.7	15.5
삼성증권	8.3	(1.3)	3.9	현대제철	4.4	(9.2)	(42.6)
SOOP	37.5	36.2	24.3	GKL	(0.6)	4.3	1.0
대한항공	2.8	(0.2)	(2.2)	더존비즈온	55.2	39.0	37.1
현대건설	22.0	7.1	8.0	세아베스틸지주	0.8	(0.7)	(16.0)
삼성물산	0.5	(1.5)	(13.1)	이녹스첨단소재	37.1	19.7	17.7

자료: FnGuide, LSEG, 신한투자증권 / 주: 수익률은 2월 6일 종가 기준



박석중 부사장

투자전략부 총괄/글로벌 자산배분

투자전략부

매크로팀

하건형 매크로팀장
거시경제, 외환, 상품



김찬희 수석연구원
거시경제, 외환



이진경 연구원
거시경제, 외환(Jr)



주식전략팀

노동길 주식전략파트장
국내주식전략



김성환 주식전략팀장
글로벌주식전략



신승웅 수석연구원
중국주식전략



강진혁 연구원
주식시황



오한비 연구원
글로벌주식전략(Jr)



홍지연 연구원
글로벌 자산배분(Jr)



이재원 연구원
국내주식전략(Jr)



조민규 연구원
국내주식전략(Jr)



퀀트·ESG팀

이정빈 퀀트·ESG팀장
퀀트, ESG



박우열 수석연구원
글로벌 퀀트, ETF, ESG



이민재 연구원
퀀트, ESG(Jr)



해외기업분석팀

최원석 해외기업분석팀장
중국 기업 분석



이주은 연구위원
글로벌 산업재



함형도 수석연구원
글로벌 신재생



심지현 선임연구원
글로벌 소비재·유통



하현호 선임연구원
글로벌 전통에너지·헬스케어



김형태 수석연구원
반도체, IT 중소형, 글로벌 IT HW



여현석 연구원
반도체, IT 중소형, 글로벌 IT HW(Jr)



채권전략팀

안재균 자산전략파트장
국내채권



정혜진 선임연구원
국내크레딧, 기업신용분석



지백연 연구원
채권·크레딧(Jr)



대체투자분석팀

김선미 연구위원
건설, 리츠, 부동산



메모

메모

WEEKLY GUIDE BOOK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석중, 홍지연, 하건형, 김찬희, 김성한, 노동길, 강진혁, 안재균, 정혜진, 김선미).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월 스트리트 프로처럼



MON

화 제의 종목을 찾고



TUE

수익을 위해 공부하고



WED

목표를 향하면



THU

Hi



FRI

금방 이뤄질거야

어떤 날, 어떤 투자도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매일매일 신투DAY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매체 별 차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3844호(2024.09.23~2025.04.30)